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주체조선의 국력이 만방에 높이 떨쳐지고 경향각지에서 자주통일열망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민중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온 겨레의 다함없는 영생축원의 마음들이 민족의 최고성지에로 대하되여 굽이쳐흐르는 태양절의 이 아침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주체1(1912)년 4월 15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주석님의 80여성상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신 걸출한 수령, 애국, 애족, 애민의 뜻과 열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상상봉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한생이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일찌기 10대의 나이에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혁명의 총대우에 자주독립도, 혁명위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의 원리를 천명하시여 자주와 선군의 길로 전진하는 주체혁명위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한평생 혁명의 총대와 함께 반제대결전의 최전방에 계시면서 특출한 군사전략과 령군술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의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신화적인 승전만을 떨치시였습니다.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령도의 전기간 철저히 구현하시여 세인이 부러워하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령도의 계승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시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승리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민족분렬과 국토량단의 비극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애국애족의 대경륜과 숭고한 덕망으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비롯한 가장 합리적인 방략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온 겨레를 조국통일운동과 민족대단결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진정 인류사상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현대조선의 새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와 더불어 세세년년 무궁토록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승승장구의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위대한 주석님의 대업을 받들어나가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능보검을 마련해주시였습니다.

탁월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주체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애국, 애민의 헌신과 로고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억년토대를 닦아주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들은 오로지 위대한 주석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 바쳐진것으로 하여 더욱 숭고하고 고귀한 위인칭송의 대기념비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토록 걸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에 백두산대국의 강성번영이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휘날리시며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쳐주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고계십니다.

오늘 공화국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 속에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의 성공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 등 최강의 핵억제력을 과시하는 세기적사변들을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고있는것은 강력한 총대의 위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위업을 이룩하시려는 백두산천출명장의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드신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아래 주체조국에서는 만리마속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속에 려명거리를 비롯하여 근로민중을 위한 문명창조의 대기념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만사람을 끝없이 경탄시키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은 기적같은 현실들이 펼쳐지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에서 온 민족, 온 겨레가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겨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의 대강과 실천방도들을 천명하시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참으로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하시고 출중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신것은 온 겨레의 무상의 영광이고 최대의 행운입니다.

대를 이어 위인복을 누리는 민족의 자긍심이 백두의 해돋이처럼 뜨겁게 끓어번지고 다도해의 푸른 물결처럼 끝없이 굽이치고있는 이 시각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겨레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억척의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언제나 태양의 성지를 우러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겠습니다.

반제민전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상과 행동의 통일체, 강철의 전위대오로 반석같이 다지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변혁운동의 승리를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특히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뜻깊은 해로 장식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전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각계 민중을 하나로 굳게 결집시켜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내고 그 하수인들의 사대매국행위, 날로 로골화되는 북침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며 친미보수패당을 척결하고 민중이 주인이 된 자주의 새 사회, 민주의 새 정치, 평화로운 새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과감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통일애국유산이 있고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며 온 겨레가 통일강국에서 만복을 누릴 력사의 그날은 밝아오고야말것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민중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영원무궁할 번영과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106(2017)년 4월 15일 서울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면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며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설레이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이 세상 끝까지 빛내여나갈 불같은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꿈과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주체 1(1912)년 4월 15일은 조국의 앞길에 광휘로운 서광이 밝아온 민족대통운의 날이며 자주시대의 태양을 맞이한 인류사적대경사의 날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불패의 백두산대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음을 심장깊이 새기면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애족애국의 한길을 걸어온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현대력사를 자주의 궤도에 올려세우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시며 한세기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민족재생의 은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세계 수많은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인사들,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결한 그 인품에 매혹되고 열렬히 흠모한 희세의 대정치원로이십니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적풍모와 조국과 인민, 력사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일제시기 일본땅에 끌려와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리던 재일동포들에게 조국해방의 환희를 안겨주시고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신 재일동포들의 삶의 은인이십니다.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주체의 산아인 총련을 몸소 무어주시고 애족애국운동을 곧바른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해외교포운동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우리들은 조국이 전후의 폐허속에서 복구건설을 다그치던 그 어려운 시기부터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시여 초급학교로부터 조선대학교에 이르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활짝 펼쳐주시였으며 귀국의 배길과 조국왕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상공인들, 나어린 학생들까지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를수록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그리움을 억누를수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온갖 로고를 다 바쳐 이끌어주신 총련애국위업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천출위인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대원수님들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163차로 2억 1 800만¥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최대의 행운과 주체위업,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필연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위용을 더 높이 떨쳐나갈 굳은 결심을 가다듬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뜻깊은 올해 총련의 모든 조직과 동포 사는 곳곳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칭송과 흠모의 열기가 차넘치도록 하며 옹근 한해를 자랑찬 투쟁과 전환의 해로 하기 위한 일대 혁신운동을 련이어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축전과 총련결성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을 비롯한 강령적말씀들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대로 절대적인 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애국충정의 본태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을 모든 사업의 기본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총련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중앙으로부터 분회에 이르는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각급 조직들과 단체들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는 애국애족의 성새, 믿음직한 성돌로 반석같이 다짐으로써 그 어떤 정세속에서도 총련조직과 동포들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교육사업을 총련의 중심과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전조직,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학생인입사업과 우리 학교 지원활동에서 기어이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새 세대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동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광범한 동포군중속에 항상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멸사복무함으로써 총련조직과 동포들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력사적인 7.4 공동성명발표 45돐과 10.4 선언발표 10돐이 되는 올해에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을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데 언제나 앞장에 서고 일본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리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에 애국지성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우리들은 열화같은 충정과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 106(2017)년 4월 15일 일본 도꾜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칭송의 대하가 온 누리에 뜨겁게 굽이치고있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가고있으며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최상의 행운과 끝없는 환희에 넘쳐있습니다.

경사로운 태양절의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태양을 맞이한 대통운의 날이며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자주시대의 려명을 안겨준 력사적사변의 날입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혁명령도의 전기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고매한 덕망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무궁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인민중시, 총대중시의 혁명원리를 천명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힌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으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한세기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시여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반미대전에서 백전백승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력사를 창조하신 절세의 애국자,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인민의 정권, 무적필승의 백두산강군을 건설하시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워주신 희세의 정치가이십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 3대헌장을 제시하시여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시기 위해 헌신하신 어버이수령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8천만 겨레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향만리 이국땅에 살고있는 우리 재중조선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존엄높은 태양민족의 일원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받들어 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어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정치실력, 한없이 고매한 인민사랑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며 20세기를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여 더욱 찬연히 빛나고 이 땅우에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강성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선군조선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주시고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시여 조중친선을 더욱 두터이 하시고 중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조선공민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였습니다.

태양민족이 맞이한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는 세세년년 변함없이 흐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은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시대를 펼치고 강원도정신을 창조하여 대원수님들께서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습니다.

더우기 태양절을 맞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현대적인 려명거리가 완공되여 행복에 넘친 인민들의 노래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있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또 하나의 기적중의 기적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주의 신념,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리시며 조국수호전과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재중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을 사회주의조국의 한집안식솔로 귀중히 여기시며 조국의 큰 대회장들에 불러주시고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였으며 지회들의 소박한 말도 정깊게 들어주시면서 뜻깊은 기념촬영까지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사랑을 우리들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조국의 통일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중국동북지역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재중조선인들답게 대원수님들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벌려 각계층 동포들속에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력사적인 7.4 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 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뚜렷한 자욱을 남기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전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동포들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 106(2017)년 4월 15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국 길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메히꼬로동당,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이딸리아 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일행,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선물과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메히꼬로동당 대표단 단장인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전국지도자가 전달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란이슬람교련합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4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란이슬람교련합당대표단 단장인 세예드 메흐디 물라이 제1부총비서가 전달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이딸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과 일행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4일 안또니오 라찌 서기장이 전달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대표단,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대표단, 스위스남부지역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대표단,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선물들이 1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였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에서 공동명의로 보내여온 선물이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일본교또대표단과 외국의 단체들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경축 일본교또대표단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14일 문화, 학술, 시민교류를 촉진하는 일조우호교또네트 부회장인 야스이 쯔또무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 및 김정일장군 탄생 75돐경축 일본준비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현민회의,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일조우호 시고꾸련락회, 일조우호 히로시마현민의회, 조선과의 친선협회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일본 전 부수상 가네마루 싱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조선중앙통신】